

5월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
- 편집자 주 -

■ ■ ■ 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속 확대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저녁시간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'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'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〈시범사업 개요〉

- 사업기간: '10년 4월 ~ '10년 12월 (9개월)
- 대상지역: 16개 시·도에서 신청한 76개 시·군·구
- 사업내용: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약 30만원(월) 지원(1일 2시간 근무, 1만2천원 지원, 시간연장 1개반 기준)
 -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 기준 완화: 3인 → 2인
 - * 소요예산: 약 45억원(약 3,500개 시간연장반 운영 확대 기준)

□ 시간연장 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기존 보육시간(07:30~19:30)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말하며, '09년말 현재 전국의 4,666개* 어린이집이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 받고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.

- * 전체 어린이집의 13%가 지정 운영 중
- *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: ('09년) 361억원(5천명) → ('10년) 408억원(6천명)
- (국공립·법인 및 직장보육시설)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% 지원, (민간보육시설)

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

○ 급변 시범사업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형태를 다양화하여 시간연장 근무수당을 지원*하고 지원기준도 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간연장 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지정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이외에 “시간연장근무수당” 지원 형태 추가

- 전국 76개 시·군·구(서울·경기: 전체 시·군·구, 그 외 지역: 2개 시·군·구)에서 약 2천3백개의 어린이집이 새로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,

- 그 결과 전국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약 7천개소(전체 어린이집의 20%)로 확대되어 시간연장 보육을 하려는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야근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중앙보육정보센터(www.educare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○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으로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인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.

▶우리동네 시간연장 어린이집 찾는 방법

중앙보육정보센터(www.educare.or.kr) ⇒ “어린이집 검색 바로가기” 클릭 ⇒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선택 ⇒ “시설특성-시간연장 검색”

○ 한편,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,4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어

- 소득하위 50%의 경우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, 소득하위 60%는 60% 지원, 소득하위 70%는 30% 지원 받을 수 있다.

□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급변 ‘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’의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연장 보육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,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, “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■ ■ ■ “내 건강은 내가 디자인!” 「건강박람회2010」 행사 개최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서울무역 전시컨벤션센터(SETEC)에서 ‘u-health시대, 내가 디자인하는 건강생활’이라는 주제로 「건강박람회2010」(보건복지부 주최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)을 개최한다.

○ 「건강박람회2010」에서는 진단관, 플러스관, 미래관 등 테마별 3개의 전시관에서 보건의료 단체, 의료기관, 민간기업 등 총 5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검진, 건강관리체험 및 정보습득, 체험형·참여형 이벤트 행사와 웅변대회,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.

○ 「건강박람회2010」은

- 국민 개개인에게는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토록 하고,
- 건강증진 전문가에게는 공공과 민간의 정보교류 등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, 국내 성공적인 건강관리 모델을 소개함으로써
- 건강관리 산업성장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코자 개최된다.

□ 건강라이프 진단관(51M×63M)은 생활습관 및 질병유무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코너로

○ 여기서 만성질환 등 질병유무, 한방체질진단, 비만도/혈압/근육발달정도/신체나이 측정, 혈액검사 등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다.

○ 또한, 구강건강상태 검진 및 틀니 세척 수리와 척추검진, 사상체질진단, 3차원영상 맥 분석, 폐관련질환(아토피, 비염, 천식, 폐섬유증), 노화방지 Anti-Aging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검진체험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.

□ 건강라이프 플러스관(51M×63M)은 건강을 위해 더하거나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개인별 적용 및 실천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관으로,

○ 건강다이어리 프로그램 체험, 가상음주 체험, 마음을 두드리는 음악치료, 미술치료 및 모래치료 체험,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체험 등 참여와 체험 속에 건강생활을 디자인해 볼 수 있다.

□ 건강라이프 미래관(36M×45M)에서는 우리나라 건강정책의 흐름과 지자체 우수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자료 전시 및 u-health 등 선진화된 건강산업을 만날 수 있으며 개막식 행사와 34개의 각종 이벤트 행사를 즐길 수 있다.

○ 여기서는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 흐름과 미래 비전, 지자체 우수 건강증진 정책소개 및 u-health를 활용한 첨단 건강산업 전시 홍보, 미래형 건강관리서비스 소개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.

□ 미래관내 메인무대에서는 ‘개막식’과 ‘건강퀴즈 배틀’ 등 총 34개의 행사가, 플러스관내 이벤

트광장에서는 ‘우리아이 영양간식을 위한 건강레시피’ 등 17개 체험행사, 그리고 세미나실과 국제회의실에서는 ‘청소년 정신건강’ 등 14개의 세미나가 개최된다.

- 전재희 보건복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건강수명을 연장하고, 건강형평성을 높여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만들어나가자.”고 하면서,
 - “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고,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감소시키면,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건강산업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하였다.

■ ■ ■ 병원 간병서비스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5월부터 시작

-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큰 병원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,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 -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, 1인 가구 수 증가, 가족기능 축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,
 - 간병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신뢰부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,
 - 개인 간 사적 계약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.
 - ※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 1,768억원('06, 보건사회연구원)
-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주로 개인 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.
 - ※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서비스 병동을 운영할 경우, 환자 및 보호자의 72.9%가 해당 병동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('06, 보건사회연구원)
-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, 상병 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.
 - 또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,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것이다.
-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총 10개 병원이며, 보험자병원(공단 일산병원)과 공공병원 2개 기관도 참여한다.

〈시범사업 선정 병원 명단〉

- 상급종합병원: 아주대학교병원, 조선대학교병원
- 종합병원: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, 삼육서울병원, 강원대학교병원, 청주의료원, 김천의료원
- 병원: 울산중앙병원, 부산고려병원, 여수애양병원

□ 시범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며, 각 시범병원에서 책정할 간병비*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.

* 현재 시범병원별로 간병형태별 간병비 산정작업 진행 중

○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일정 소득 이하 계층*은 간병비의 50%를 지원 받게 된다.

* 간병서비스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가 월 43,600원 이하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
○ 또한, 환자 상태(경증, 중증) 및 시간대별(주간형, 야간형, 전일형), 1:1 간병부터 공동간병(1:2~1:6) 등 환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범병원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 시범병원에는 간병인을 위한 휴식·탈의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, 이에 따라 간병인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측면에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며,

○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측면에서는 쾌적한 치료 환경 마련,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며,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등재하여 원하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■■■ 보건복지부,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조사 실시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

- 대상으로 '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'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시범조사는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과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.
 - 인증기준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기준으로 전체 44개 영역과 109개 기준으로 개발되었다.
 - * 현행 의료기관평가기준은 21개 부문[진료 및 운영체계(6개), 부문별 업무 성과(9개), 임상 질지표(4개), 환자만족도(2개)], 119개 평가기준으로 구성
 - ** 현행 기준에 비하여 환자안전목표, 진료의 연속성, 환자평가체계, 의약품관리체계, 리더쉽 관련 인증기준이 강화 또는 보완
 - 그리고 조사방법은 인증기준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각종 규정과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, 환자의 입원에서부터 퇴원에 이르기까지 진료과정을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추적조사 기법(Tracer Methodology)을 채택하였다.
 - 이 기법은 환자·의료진 등과 대화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진료과정과 결과를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고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교육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 - * 추적조사기법(Tracer Methodology): 조사위원이 조사대상으로 환자를 선택하고 의무기록을 확인하면서, 환자의 배경과 입장에서 진료경로를 따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조사방법(Magnarelli, 2005)
 - ** 의료기관평가제하에서 인력·시설·장비·부서 등 H/W 중심의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 수행
 - 시범조사 대상기관으로는 의료기관의 병상규모,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인 순천향대학교병원, 을지대학교병원, 부산대학교병원 등을 비롯하여 총 12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되었다.
 - 조사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3배수로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범조사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을 우선 선정하였고,
 - 특히, 이번 시범조사에는 그간 현행 의료기관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300병상 미만의 병원(2개)도 포함되었다.
 - 시범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의사·간호사·의료기사·행정가 등 전문가 중심의 추진단 위원으로 조사위원(47명)과 조사반(12개)을 구성하고, 조사반(3~5명)은 병원 규모에 따라 2~4일간 현지조사를 진행한다.
 - 그리고 조사위원에게는 인증제 추진배경, 인증기준, 조사방법, 보고서 작성과 조사전략 수

립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.

- 또한, 시범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난 4월 15일~16일에는 시범조사 참여 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소개 및 추진과정, 인증기준, 조사방법과 의료기관의 준비사항 등에 대한설명회를 개최하였다.
-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범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,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수정·보완하고,
 - 시범조사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을 미리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■ ■ 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 개최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원장 김용하)에서는 2009년 9월부터 「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('11~'15)」수립을 위해 6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.
- 그 일환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성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『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』를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총 9회에 걸쳐 실시한다.
 - 대토론회는 경제계, 노동계, 여성계, 종교계, 언론계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의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'06~'10)을 재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,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.
- 전국 순회의 릴레이 토론의 출발이 되는 제1차 대토론회는 “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,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”라는 주제로 사회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점추진 과제를 논의한다.
 - 1차 토론회는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주재 하에 김영배(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), 김태현(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), 백헌기(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), 신에리(중앙일보 논설위원), 이영선(한림대학교 총장), 조애진(육아방송 이사장), 주명룡(한국은퇴자협회장), 현오석(한국개발연구원장)의 토론으로 진행된다.
 - 제1차 토론회는 2010년 5월 10일(월) 14:0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된다.

	토론회 주제	일시·장소
1차	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, 무엇을 담아야 하나?	5.10(월) 14:00~ / 롯데호텔 (서울)
2차	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방안	5.12(수) 14:00~ / BEXCO (부산)
3차	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	5.18(화) 14:00~ / 리베라호텔 (대전)
4차	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방안	5.25(화) 10:00~ / 롯데호텔 (서울)
5차	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	6.4(금) 14:00~ / 코리아나호텔 (서울)
6차	노후건강 보장 및 고령친화 환경조성 방안	6.9(수) 14:00~ / 김대중컨벤션센터 (광주)
7차	일-가정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	6.16(수) 10:00~ / 코리아나호텔 (서울)
8차	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	6.23(수) 14:00~ / 코리아나호텔 (서울)
9차	성공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	6.29(화) 14:00~ / 롯데호텔 (서울)

■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잠정 발표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*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,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하였다.

* 선정기준액: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

○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)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,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, 2급, 3급 중복장애인*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.

* 3급 중복장애인: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

〈2010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(잠정안)과 해당 여부 기준〉

구분	선정기준액 (잠정안)	해당 여부	
		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	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
배우자 없는 경우	월 50만원	월 50만원 이하	1억2천만원
배우자 있는 경우	월 80만원	월 80만원 이하	1억9천2백만원

*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% 할인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(예시, 재산가액 1억2천만원 x 5% ÷ 12개월 = 50만원/월)

○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,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6월말에 확정하여 고시한다.

-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.
- 이 외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조기에 지원하고자, 법 시행일(7.1일)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·접수를 받는다.
 -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~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,
 -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,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(장애진단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지)를 제출하여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하여야 편리하다.
 - * 집중 신청기간 운영 : 5월 31일 ~ 6월 11일(2주간)
 -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(자산조사 + 장애등급 심사)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, 7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.
 -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(지급계좌)을 지참하고,
 -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.
 - 주거 형태가 전·월세인 경우, 전·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.
 -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.
-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선정기준액(잠정액)과 신청·접수기한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발송할 예정이다.
 -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5월 13일 발송하고, 나머지 중증장애인에게는 5월 18일 발송한다.
 - *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된 안내문(보이스 아이: voice eye, 시각장애인용 문자 음성 전환기기 첨부)을 제작하여 발송
 -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 없이 129)에 문의하면 된다.

2010년 전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일반평가 실시

- 평가목적
 -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(구조, 과정, 결과) 등 평가를 통해 건강검진기관의 질 향상도모와 국민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

○ 평가방법

- (평가대상) 국가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모든 검진기관('10.4.30.까지 지정된 전체 검진기관)
※ '10.3.31. 현재 기준 총 13,170개소
- (평가방법)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실시
* 일반검진기관, 영유아검진기관, 구강검진기관별 평가 실시
- (평가결과) 검진기관별 평가부문별 등급화한 점수 공개
- (수검자만족도 조사) 일반검진, 영유아검진기관중 연간 검진건수 600건 이상인 기관을 선정하여 전화조사

○ 평가일정

- 평가대상기관 선정(5월) → 평가설명회(5월) → 평가자료 자체입력(검진기관, 7~8월)→현장조사(9월)→1차 결과통보(10월)→이의신청(11월)→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 통보(12월)

2009년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발표 :
795천명에게 보육료지원, 이 중 640천명은 보육료전액지원

<개 요>

-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: 1,135천 명('08) → 1,175천 명('09)
- 보육료지원 아동 수: 731천 명('08) → 795천 명('09)
- 보육료지원아동비율 67.6%
- 보육료전액지원 아동 수: 431천 명('08) → 640천 명('09)
- 전액지원 아동비율 54.5%
- 보육시설 수: 33천 개소('08) → 35천 개소('09)
- 보육시설 종사자 수: 191천 명('08) → 207천 명('09)
- 보육교사 150,477명 중 남자 2,518명(1.7%) 여자 147,959명(98.3%)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전채희)는 '09년 12월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설치현황, 보육료지원대상자,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, 종사자 현황 등이 수록된 「보육통계(2009)」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.

○ 「보육통계」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연 1회 발간되며,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.

※ 보육통계 파일 받기(www.mw.go.kr)

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마당) → 통계포털(자료마당) → 부서별통계(보육)

-
- 2009년 보육통계는 이전과 달리 보육시설,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시·군 단위까지 세분화하였고, 성별도 구분하여 실었다.
 - 2008년 「보육통계」까지는 시·도 기준으로 보육시설 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2009년 「보육통계」에는 보육시설, 보육현원, 보육시설종사자, 보육료지원대상 등의 자료를 시·군·구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되었고,
 - 아울러, 보육시설 영유아·종사자의 성별도 구분하여 더욱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.
 - '09년 말 현재 35,55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17만 명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64만명(54.7%)이 보육료를 전액(정부지원단가기준)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